



이동환 고양시장이 특셈브르크 국립보건원 한국분원 설치 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기관 등 찾아 투자처 확보 글로벌 자족도시 도약 올인”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총력

130여개 기업·기관 투자유치 활동
투자의향서 72건 등 투자액 6.3조
철도·도로망 확대로 교통여건 개선

민선 8기 2주년을 맞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글로벌 자족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이동환 고양시장 취임 직후부터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경제분야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2022년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지정되었고 올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 최종신청을 앞두고 있다. 최종결과 발표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글로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최종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투자수 확보를 위해 국내외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첨단기업, 연구소, 교육기관을 직접 찾아가며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최대 관건은

투자수 확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투자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투자유치단을 발족하여 약 130여개 기업 및 기관에 투자유치활동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확보한 투자수요는 투자의향서(LOI) 72건, 업무협약(MOU) 43건이며 투자금액은 약 6조34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지금까지 적립한 470억원의 투자유치기금을 활용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출퇴근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도로망을 확대하고 교통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해선 소사~일산역 구간이 개통되어 서울 서부 및 경기도 남부지역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접근성이 향상됐다.

올해 연말에는 GTX-A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되어 광역 출퇴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양시에는 킨텍스, 대곡, 창릉역이 조성될 예정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입학사정관, 퇴직 3년간 학원·과외 금지

교육부, 고등교육법 등 개정안 제출

앞으로 퇴직 후 3년이 안 된 대학 입학사정관이 학원 설립 및 취업은 물론, 교습소나 과외 활동을 할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제도에 따라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정 전문가를 가리킨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

하고 있다.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입학사정관이 학원에 규정되지 않은 소규모 교습소를 만들거나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 제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입학사정관의 설립·취업 대상에 교습소와 과외교습을 포함했다. 이를 어겨 적발된 입학사정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잠실돔구장’ 짓는 5년간 ‘잠실 주 경기장’서 야구경기 한다

프로야구 LG트윈스·두산베어스
2027년부터 대체 야구장 활용
1.8만석 규모… 향후 3만석 조성

서울시는 잠실돔구장 건립 공사가 진행되는 약 5년간 ‘잠실 주 경기장’을 대체 야구장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잠실야구장을 흡으로 사용하는 프로야구 ‘LG트윈스’와 ‘두산 베어스’는 2026년 시즌까지 잠실구장을 사용하고, 2027년~2031년 총 5시즌을 대체 야구장에서 경기한다.

경기장 좌석은 그라운드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내·외야를 중심으로 1~2층에 총 1만8000여석 규모로 만든다.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람객 안전이 확인되면 주요 경기와 포스트시즌 때는 3층 관람석까지 개방해 3만석 이상 규모로 관람석 조성이 가능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관람객 안전을 위해 봉은교 방향의 서쪽 진출입로와 함께 잠실종합



잠실 돔구장 실내 조감도.

/서울시

운동장 북쪽 부근 공사 영역 조정 등으로 백제고분로 방향의 동쪽 진출입로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대체 구장 조성에는 300억~4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시는 상업광고 사용료를 조정하는 등 두 구단과 비용보전 방법을 협의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잠실 주 경기장은 돔구장 건립 기간 대체 야구장으로

사용되는 곳이지만 임시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람객들의 편의에 초점을 맞춰 조성할 것”이라며 “아울러 야구팬들의 기다림에 부응할 수 있는 잠실 돔구장 건립도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개발 사업’과 함께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유보통합 재원 확보 위해 특별회계 등 설치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국회에 제안
국회·정부 협조 필요한 22대 과제
세입축소, 교육여건의 후퇴 불러

정부가 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22대 국회에서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따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아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22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정책 추진 난관을 극복하고 전국적인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 협조가 필요한 22대 과제를 발굴·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중·고·대·시급성·과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와 ‘영유아보육경비전담금’ 설치 등을 통해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 자체사업(자율시책사업)을 포함한 기존 영유아보육 재정에 대한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고, 유·보 교사 처우 개선 등 상향 평준화에 소



요되는 추가 필요 재원은 특별회계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따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고교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학생수’에 따른 세입 축소는 교육여건 후퇴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시교육청 우려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

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밖에 10대 과제로는 ▲학생맞춤형 합치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 마련 등이 꼽혔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제22대 국회의와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22대 교육과제를 제안하고, 이달 중 마련될 국민의힘과의 자리에서도 해당 과제를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9 | 해질 / 19:55

7월 10일 (수)
음력: 6월 5일

수도권 날씨
23~3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22/29
- 동두천 22/30
- 가평 22/30
- 파주 21/29
- 서울 23/30
- 양평 23/29
- 인천 22/29
- 수원 23/28
- 용인 23/28
- 평택 22/2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바이든 완주 의지에 공화당은 축제 분위기 / 사진 뉴스스
- ▲ 러, 우크라 아동병원 등 대공습... 200여명 사상·애도의 날 선포

- ▲ 中대학, ‘판다 전공’ 신입생 첫모집... “판다 안고 수강 가능해요?”
- ▲ 韓북핵대표, 11일 북미회담인력특사 접견... 北인권 문제 논의



- ▲ 日 자위대 채용률 50.8% 사상 최저... 잇단 비위·저출산 등 여파
- ▲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발표 임박... ‘10기 수출’ 첫 단추 끼운다 / 사진 뉴스스